

늘어나고 있다. 무기력증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노숙을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늦게 등교해서 잔다고 한다.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은 점심 시간이다. 그 후 또 잔다.

두 번째 일어나는 시간은 수업종료시간이다. 하교해서는 끼리끼리 만나 밤새도록 놀던지 아니면 PC방 등에서 게임에 빠진다. 여기에 술·담배는 기본이다. 성관계 역시 부지기수다. 성병에 걸린 경우도 있다.

이런 생활이 고교시절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학교를 가지 않은 체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굶다고운 시절이 무너져가는 슬픈 장면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느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및 아동학대의 희생자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처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어쩔 수 없었던 나쁜 경험에 계

독자투고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애초부터 무기력증 환자 만들지 않는 것이 상수

속 쌓이고, 모든 상황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무기력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한다.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선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누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겠는가. 그런데 방심이 이런 현상을 빚어낸다. 핵가족 하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쁘게 움직여야 삶을 부지할 수 있다.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늦은 밤이 돼서야 귀가한다. 이러한 동안 어린 자녀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서민

들은 물론 부유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무기력증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람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 영원히.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성공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학습된 무기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팀은 동물들의 '숙달된 무기력'을 실험하던 도중 이런 원리가 인간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20여 년간의 술한 실험과 현장조사 연구를 통해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해석과 언어표현 습관을

긍정적·낙관적으로 바꿔줌으로써 누구나 희망에 찬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지적 치료법을 개발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기력의 타성에 빠진 개에게 실험을 했다.

물이 젖은 바닥에 전기를 흘려보냈다. 피할 생각을 않고 그대로 앞드려 있었다. 그 정도로 무기력했다. 때문에 실험실 바닥에 전기를 흘린 후 무기력하게 앞드릴 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안전한 방향으로 옮겨줬다. 그렇게 수없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안전한 방향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토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전기를 흘려서 고통을 겪을 때 놀랍게도 전과는 달리 발떡 일어나 안전한 방향으로 뛰어 들어갔다.

즉,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결과다. 그렇다. 긍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느 생물체보다도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무기력증 환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상수가 아닐까. 명심하자.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음력 5월 25일)		
 48년생 두둑한 밑천에 걸음이 가벼워진다. 60년생 더없는 경사 당상령 실총을 추자. 72년생 슬픔도 기쁨도 여럿이 함께 하자. 84년생 끈기와 집념으로 반대를 설득하자. 96년생 조용하고 차분히 순서를 기다려라.	 49년생도 아내면 도배정으로 맞서보자. 61년생 축하보다는 걱정 근심이 먼저 온다. 73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 85년생 대접받으려면 지갑을 열어보자. 97년생 아쉬움도 미련도 바람에 날려내라.	 50년생 나쁘지 않았더라면 무리들 해. 47년생 그나마 안심인 차선으로 돌아서라. 74년생 부족한 기술을 힘으로 대신하자. 86년생 구권이 명관 그림자를 따라가자. 98년생 기운이 팽펄 나는 창천을 들어보자.
 51년생 늦장 부리는 대처 손해가 배가 된다. 63년생 승승장구 순풍에 돛이 달린다. 75년생 잘받은 성격표 부러움을 살 수 있다. 87년생 치명적인 유혹에 포로가 되어보자. 99년생 당장의 결과보다 신뢰를 얻어내라.	 52년생 완벽하다 싶어도 고만을 더해보자. 64년생 길어지는 논쟁 백기 들어 항복하자. 76년생 언행 불일치 친구를 알아야 한다. 88년생 갈보기 초라해도 진짜를 가져오자. 00년생 요령보다는 패기 강하게 맞서보자.	 53년생 오히려 풀어지고 평화가 다시 온다. 65년생 달리는 의전에 귀를 기울이자. 77년생 풍요이 수고도 알삼히 해야 한다. 89년생 어딘가를 인해도 한 우물을 파보자. 01년생 대신하는 역할 반복 반복 나간다.
 54년생 시간도 노동도 가까이 나누보자. 66년생 한바탕 웃음으로 시름을 잊어라. 78년생 눈시를 적셔지는 감동에 빠져보자. 90년생 거래나 흥정 믿음부터 오고 가자. 02년생 처음인 만남에서 사랑이 보여진다.	 55년생 기쁘고 먼 사이 선을 그어내자. 67년생 에누리 요구에 친절함을 보여주자. 79년생 저도 좋다는 편한함을 가져보자. 91년생 힘들어했던 고생 값으로 매겨진다. 03년생 혼자만의 시간도 일뜰히 써야 한다.	 56년생 품에서 떠났으면 미련도 금물이다. 68년생 지독했던 원망의 끝이 보여진다. 80년생 큰 부자 아니어도 만족을 가져보자. 92년생 살다 하는 불만 속으로 해야 한다. 04년생 세상 공부 더하러 더박이 들려온다.
 57년생 관허하는 간접 책임으로 변해간다. 69년생 이별 인사는 차갑고 냉정해진다. 81년생 고미운 배려를 하리 속여 받아라. 93년생 하늘이 내린 인연 눈빛이 오고 간다. 05년생 행복한 추억이 추억각국 쌓여간다.	 58년생 여러 번 순싸여도 조심을 더해보자. 70년생 책으로 쓰여지는 자량이 생겨난다. 82년생 구경조차 못 해본 호시를 누려보자. 94년생 늦게 배운 공부 열성하 따라가자. 06년생 화려한 전성기 이름값이 달라진다.	 47년생 언제나 빈전주는 재미에 빠져보자. 59년생 애초에 불기능 빠르게 돌아서라. 71년생 반구석이 많아도 앞으로 나서보자. 83년생 밀고 당기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 95년생 억울하고 분해도 뒷걸음쳐야 한다.

기고

최근 급증한 청첩장 스미싱 주의보

최근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청첩장 링크를 보내는 청첩장 스미싱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URL을 누른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청첩장 스미싱은 URL이 포함된 청첩장 문자를 전송하고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조종 등으로 당사자도 모르게 금융거래를 시도하여 피해를 준다.

#청첩장 스미싱의 주요 특징

1. 지인 사칭 : 발신번호를 수신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실제 지인이 보낸 문자로 오인하기 쉽다.
2. 악성 앱 설치 유도 :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를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여 금융 피해를 입힌다.
3. 악성 코드 유포 : 청첩장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4. 지인 연락처 활용 :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이용한 2차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청첩장 스미싱 예방법

1. 출처 확인하기
 - 지인에게서 왔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인에게 문자를 받으면 직접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2. 스마트폰 보안 강화
 - 악성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차단',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여 악성앱과 원격제어 앱을 검사하고 문제되는 어플이 발견된다면 즉시 삭제한다.
3. 서비스 가입하기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되는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앱세이프' 홈페이지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으로 온라인상 비대면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 혹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문자 메시지를 통해 URL을 클릭했다면, 비행기모드 설정 후 모바일 백신(알약, V3 등)으로 악성앱 설치 파일(.apk) 삭제하고,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 감염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김가영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 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 (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